



구현하기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홍완표의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회, 의원들 간에는 대화를 통한 화합하는 의회, 집행부와는 적절한 견제속에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의회□□가 될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

## ■ 2017년 금정구의회 의원 신년 총렬사 참배

금정구의회는 1월 11일 전체의원이 신년 총렬사를 참배하여 호국선열들의 충효정신을 기리고 2017년 의정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총렬사를 참배했다.



## ■ 제248회 임시회 개최

금정구의회는 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248회 임시회를 열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의결사항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보류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는 원안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구서4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은 원안 채택 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주민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 ■ 의원 발의 조례 사항

### ①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자 : 박정운 의원외 5명
- 발의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이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 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깨끗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의원이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발의하였다.

### ② 조례명 : 부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정미영 의원외 4명
- 발의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절벽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고 둘째나 셋째의 출산을 고민하기 이전에 결혼이나 출산 그 자체를 고민하는 젊은 층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출산장려 지원기준 조항을 수정 발의하였다.

### ③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하은미 의원외 5명
- 발의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기준, 변경 신청 및 인정 취소 등 전통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과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관리 등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조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발의자 : 오희주 의원외 1명
- 발의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다양화·전문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리로 입주인 등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통한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주민들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감사 대상 및 요청 방법,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종류, 감사반 구성 규정, 감사계획 통보 및 감사 실시, 감사결과의 통보 및 비밀보호 등의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 공무원 직업체험 청소년 의회방문

지난 1월 10일 공무원 직업체험 청소년 20명이 본회의장 등 금정구의회 견학을 실시하였다. 견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를 견학하면서 의장 및 의원 역할을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홍완표의장은 “현장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5분 자유발언

#### ◆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1.17.)



정미영 의원

#### 제목 : 문화재의 관리를 촉구하며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정국이 어지러워서인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올해는 금정구민 모두에게 즐거운 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선두구동과 청룡노포동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마음가짐으로 그 관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포동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녹동 마을에는 지경고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동래와 양산의 경계석이 있습니다. 비석 하단에 동래와 양산이라는 글자가 마주하고 있어 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노포 사송로가 확장되면서 원래의 위치에서 지금 위치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때 경계석이 잘못 놓여 동래라는 글자는 금정산을 향하고 양산이라는 글자는 선두구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계석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경계석의 위치와 방위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금정구민운동장 표지석 뒤에는 선조들이 동래부사의 선정을 기린 마애비가 두개 있습니다. 이는 금정구민운동장 진입로 인근 갈록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0년 구민운동장의 진입로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옮긴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고 많은 자리를 모두 다 물리치고 선조들이 부사들의 어진 정치를 돌에 새긴 불망(不忘)의 마애비를 구민운동장이라는 큼직한 표지석으로 가린 것에는 주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선두구동 하정 마을의 제당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소산리(蘇山里)라 하였고 역원이 있던 곳입니다. 읍지에 의하면 소산역에는 말이 10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마을 당산제에서는 마당제(馬堂祭)나 마당장군제(馬堂將軍祭)라는 제사와 차례가 있었답니다. 현존 제당은 1975년에 세워졌다는데 지금은 동래베네스트 골프클럽 안에 있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무로 만든 거룻대 제단은 사라졌으며 이 제단을 지켜온 노송 세 그루도 2016년 전원주택 붐에 밀려 잘리고 말았답니다. 제당의 상태 파악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1996년에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된 노포동 고분군의 관리입니다. 이곳은 1983년에 처음 알려진 후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부산시립박물관과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두 차례에 걸쳐 700㎡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때 청동기시대의 방형 주거기 2동, 삼한시대의 덧널무덤 45기, 독무덤 6기의 계 5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곳 고분군 일대를 정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10년간 18억 7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포동 142-1과 142-2번지의 12,708㎡를 매입해 왔는데, 매입지의 관리 실태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는, 「문화재 보호 조례」 제42조제2호에서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존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2012년 10월 31일 고시하였습니다(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13호). 이 고시에 의해 원지형 보존구역에 속하는 노포동 142-8번지에 금정구는 2015년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등 자재적치 및 임대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왔으며, 노포동 1119-6번지 기획재정부 관리토지에는 재활용수집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금정구는 이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행위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